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 싱가포르 ]

- 연수기간 : 2019. 6. 29(토) ~ 7. 3(수) / 3박 5일
- 연수지역 : 싱가포르
- 연수인원 : 17명(의원 3, 사무국 1명, 도시재생과 10명, 도시재생센터 3명)
- 연수내용
  - 도시재생과 선진지견학에 따른 공무국외연수
  - 도시경관 및 도시재생, 관광자원화 현장 벤치마킹

2019. 8.



강릉시의회

# 목 차

1. 연 수 개 요 .....	1
2. 연 수 일 정 .....	1
3. 방문국가현황 .....	2
4. 주요 방문지 및 내용 .....	3
5. 주요 시사점 및 특이사항 .....	11

## I 연수 개요

- 연수지역 : 싱가포르
- 연수목적 :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견학
- 연수기간 : 2019. 6. 29. ~ 2019. 7. 3. (3박 5일)
- 보고서 작성자 : 산업위원회 정규민
- 연수자 인적사항

소속위원회	성명	확인
산업위원회	배용주	
산업위원회	최익순	
산업위원회	정규민	

## II 연수 일정

일자	일정내용
6/29 (토)	▶ 인천출발 → 싱가포르 도착
6/30 (일)	▶ 플로턴 해리티지 탐방 항만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시대별 개발사례와 역사문화유산 활용 ▶ 커뮤니티오브템피니스 (주거, 체육, 도서관) 공동체의 주거 및 생활공간 복합적용의 도심재생사례 ▶ 템시힐 : 철근한 영국군 주둔 막사의 상업공간화의 도시재생사례 ▶ 보타니 가든 : 황무지 인공조림을 통한 자연환경자원 관광자원화(문화유산 식물원) ▶ 티옹바루 정부공공아파트단지 : 정부가 공급한 공공아파트 ▶ 싱가포르리버(클라키 수변공간 재생사례)
7/1 (월)	▶ 도시개발청(URA) 방문 : 도시개발 역사 및 과정, 현황, 방향 등 ▶ 차이나타운 전통관광시장 활성화 사례 ▶ 마리나베이샌즈 관광이벤트 개발 사례 : 수변공원 관광이벤트
7/2 (화)	▶ 센토사 리조트관광지 개발 사례 ▶ 말레이마을, 인도마을 등 구시가지 쇠퇴지역 재생사례 골목길 벽화, 주변지역 및 보유문화 관광자원화 등 ▶ 국립도서관 방문
7/3 (수)	▶ 인천도착 강릉도착

### III 방문국가 현황

- 싱가포르 [Singapore]
- 면적 : 719.1km<sup>2</sup> (서울의 약 1.2배)
- 인구 : 약 586만명 (세계113위)
- GDP : 약 3,728억700만달러 (세계 35위)  
1인당 GDP 6만5627 (세계 7위)



- 언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 정부 : 의원내각제 / 의회 : 임기 5년의 단원제
- 종교 : 불교(33%), 기독교(18%), 이슬람(15%), 도교(11%), 힌두교 등



○ 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이며,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였다. 196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건설 당시 유럽인·인도인·말레이인 등 종족별 주거지로 나뉘어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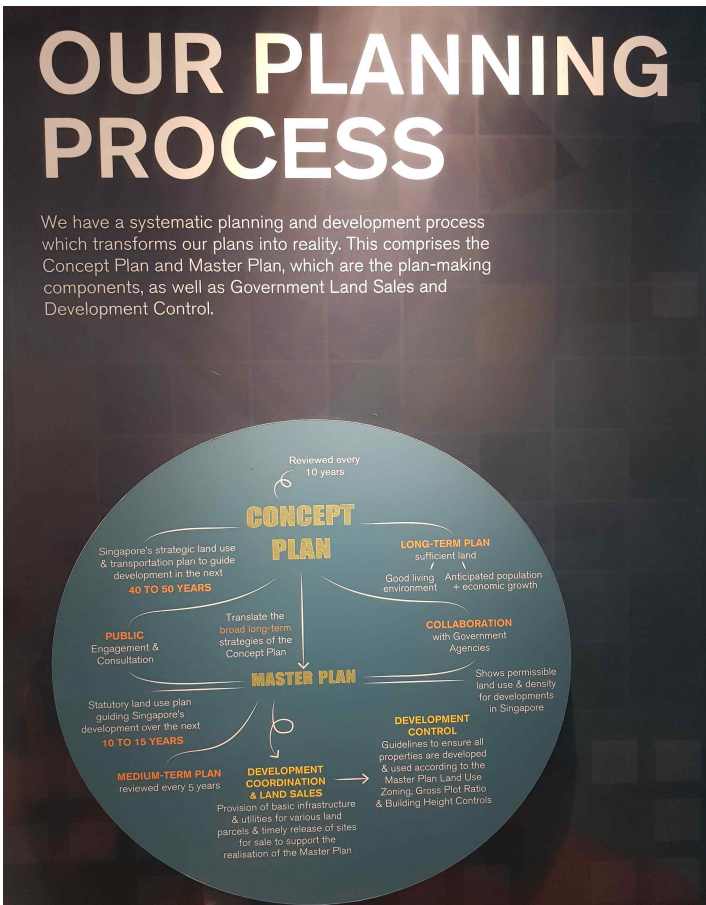
무역항로 번창하였다.

-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해외투자에 크게 의존하는 개방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경제부국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동남아시아지역의 금융중심지로 아시아달러시장이 개설되어 있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 다민족국가로서의 균형을 위하여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관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책으로서 중앙복지연금제도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일종의 강제저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IV 주요 방문지 및 내용

### 1. 도시재개발청 URA(Urban Regeneration Authority)

-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도시의 비전을 이끌어내고 도시계획방향을 구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도시 계획 및 관리를 위한 지원조직으로 도시재개발 과정과 역사, 향후 방향성 제시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독립 후 체계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며 도시 재개발국 UR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 도시재생의 모델이 되고 있는 URA는 전국을 55개 지역으로 나눈 도시의 마스터 플랜과 개발계획지침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친환경, 지속가능함 등의 글로벌 화두를 담고 있으며 정체성 제시, 마리나 베이 계획, 공원 수변 계획 등 도시의 전체적이고 세부적인 면까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시 재개발국에서는 상·하위 도시 계획들을 직접 수립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심지의 개발과 도시문화 유산의 보존을 함께 고려하여 가치있는 도시 공간정보를 수집 및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한편, 전시·출판·교육 등을 통해 일반인의 공감대를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 <시대별 주요 계획> (출처:옥상조경정책연구, 김수봉 저)

- ① 잭슨플랜 : 도시 내에 말레이인, 중국인, 인디언 그리고 유럽인 등 주요 인종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상업과 행정구역을 특징에 따라 구획하였다. 오늘날 캄퐁그람(Kampong Glam), 차이나타운(Chinatown), 리틀인디아(Little India) 등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각각 말레이 중국, 그리고 인디언들의 성격을 잘 간직하고 있다.
- ② 1958년 도시계획 : 점차 싱가포르가 개발되면서 인구증가, 교통 혼잡, 빈약한 위생상태 그리고 과밀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주택과 실업문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며 이 문제는 각각 HDB(주택개발위원회, Housing & Development Board)와 EDB(경제개발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Board)에서 담당하였다. 특히 제조업 분야와 금융부분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③ 1971년 컨셉 플랜(최초의 컨셉 플랜) : 신생국가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시설과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센트럴 수변지역 주변의 고밀도 위성도시의 계획을 가시화하였다. 위성 도시는 고속도로와 서로 연결되게 계획되었으며 이 안에서 Mass Rapid Transit System(MRT, 대량고속전철)이 계획되었다.

- ④ 1991년 컨셉 플랜 : 경제발전과 양질의 삶에 중점을 두었다. 10년 동안 MRT네트워크는 연장되었고, 아주 폭넓고 다양한 종류의 주택들이 공급되었으며 새로운 지역 중심지와 비즈니스파크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Re Creation 지역과 더 많은 도시공원과 연결녹지를 조성했다.
- ⑤ 2001년 컨셉 플랜 :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도시, 편리한 주택의 공급, 레크리에이션 시설 선택의 다양성, 상업의 유연성 조장, 국제경제에 발맞춤, 전철노선의 연장과 문화적 정체성 등이 계획되었다.
- ⑥ 2003년 마스터 플랜 : 양질의 삶, 상업환경의 개선,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지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계획은 특히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공원과 수변의 계획, 정체성 계획에 역점을 두었다.



## 2. 플로턴 해리티지(The Fullerton Heritage)

- 플로턴 호텔은 1928년 우체국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1996년까지 중앙우체국으로 사용되었으나, 2001년 400여개의 룸을 가진 호텔로 리모델링이 되었으며, 19세기에 싱가포르 리버로 들어오는 배를 검열하던 세관 건물은 커스텀스 하우스(Customs House), 과거 배에 물을 공급해주던 공간은 더 플러튼 워터보트 하우스(The Fullerton Waterboat House)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 3. 템피니스 공공도서관(Tampines Regional Library)

- 템피니스 공공도서관은 2017년 8월에 템피니스 허브로 불리는 복합건물 내에 총 5개 층 건물의 1만6722㎡ 규모로 개관했다. 40만권의 장서와 347종의 잡지, 1만6800점의 시청각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도서관은 마치 축구경기장을 품에 안은 모양새다.



복합건물 내에는 도서관과 축구장 외에도 극장, 수영장, 커뮤니티 센터, 푸드코트, 대형슈퍼마켓 등이 들어서 있다. 대형으로 도서관 규모를 확장하면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이주를 추진하는 싱가포르의

도서관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4. 뎀시힐(Dempsey Hill)

- 철군한 영국군 주둔 막사를 상업공간화한 도시재생한 사례이다. 현재 공원과 멋진 레스토랑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싱가포르에서 식도락으로는 빠지지 않는 곳으로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 카페 등이 모여 있으며, 커다란 나무 그늘이 많은 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식사 전후로 산책하기 좋게 꾸며져 있다.



#### 5. 보타닉 가든(Botanic Garden)

- 광대한 부지에 수만 그루의 수목이 무성한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이다. 도심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말에는 이곳에서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눈에 띈다. 1822년 식물원과 실험용 정원으로 시작되었던 것을 1859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해 재개관하고 1874년부터 정부가 직접관리하기 시작했으며 화훼 산업, 하이브리드종 개발 등 연구와 더불어 정원 조성에 힘쓴 결과 국제적인 수준의 열대식물 전문 기관으로 발전했다. 열대림, 장미류, 난초류가 자라고 있는 정원과 물새가 헤엄치는 커다란 호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 6. 티옹바루 정부공공아파트단지(Tiong Bahru)

- 티옹바루는 1930년대 외국인들이 거주하던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단지이며, 용스트리트, 훈스트리트에는 작은 카페와 디자인 숍의 아기자기하게 위치해 있다. 앞서봤던 템피니스와 비교하면 싱가포르의 과거와 현재라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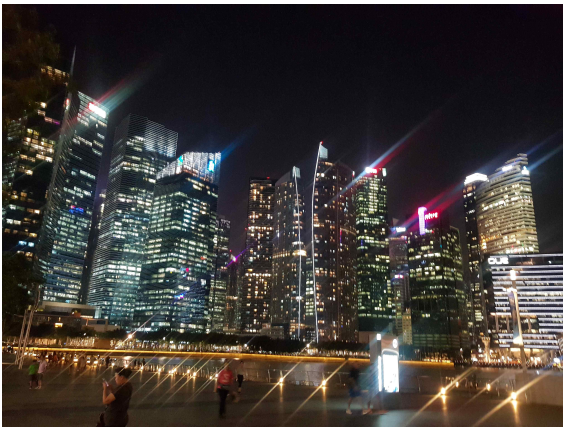
## 7. 싱가포르 리버 클락키(Singapore River Clarke Quay)

- 싱가포르의 명소인 클락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좋은 수변공간 재생사례이다. 과거 무역중심지이자 물류창고 밀집지역이었지만, 인구과밀화와 수질오염의 부작용으로 싱가포르 강의 오염이 심해지자 정부는 이 역할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1970년대부터 30년에 걸친 수질개선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현재의 모습인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 8. 마리나베이(Marina Bay)

- 마리나베이는 싱가포르의 남쪽 끝에 위치한 곳으로 바닷가와 고층 빌딩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여행하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멀라이언 상, 싱가포르 플라이어 등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을 중심으로 많은 레스토랑과 노천카페, 쇼핑몰, 예술 과학 박물관, 카지노,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 있는데 하나하나가 거대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있다.



## 9. 센토사 섬(Sentosa Island)

- 센토사 섬은 하버프런트에서 약 800m 떨어진 핵심 관광명소로 섬 자체가 이미 거대한 테마파크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20여 가지의 다양한 놀이기구와 남쪽 바다를 향한 아름다운 비치까지 놀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리관유(李光耀)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에 힘입어 입체적인 도시 재구성이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10년 단위 컨셉 플랜을 바탕으로 5년 단위 마스터 플랜이 세워졌고 그 아래 Clean&Green 정책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두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개발에 이르고 있다.



## V 주요 시사점 및 특이사항

### 1. 싱가포르의 도시재생

- 싱가포르의 도시재생은 도시재개발청인 URA에서 보았듯이 1971년 이후 실시된 전략계획으로 10년 단위 계획인 콘셉트플랜과 1989년 시작된 5년 단위 계획인 마스터플랜 그리고 주로 중심지역이나 보존지역에 대한 절제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바탕으로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 이렇게 체계적인 약 50년간의 계획이 성공을 거둔 데에는 싱가포르의 정치가 리완유(李光耀) 총리의 26년간의 장기집권과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수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견실한 경제 구조와 사회안전망시스템으로 선진국 반열에 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 또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통해 다민족 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빠르게 글로벌 도시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차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민주적인 정책과 언어, 도시계획, 교육 등에서 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들이 글로벌 도시국가로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 2. 싱가포르 도시재생 사례를 통한 강릉의 도시재생

- 비록,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앞선 주요 방문지역의 사례를 통해 강릉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자연친화적인 발전이다. 싱가포르는 ‘정원의 도시’ 라고 불릴 만큼 어느 곳을 가더라도 심지어 고속도로에도 울창한 나무와 과란 정원이 꾸며져 있다.



- 또한, 다문화국가로 다양한 인종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시 전역 어디에서도 커뮤니티, 사람중시의 문구를 볼 수 있었다. 사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복합커뮤니티 공간인 템피니스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도서관이 사람들의 삶 속으로, 개인의 일상 생활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좋아하는 청년,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고 싶은 직장인 등 지역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이익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대응 가능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은 옥천동 도시재생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